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인본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우 사랑

주간충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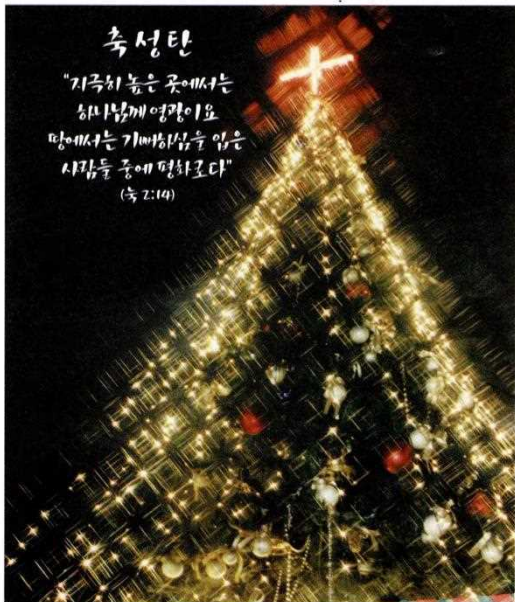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골로새서 3:12)

발행처: '대한예수교 추수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진근



축성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이요
평안의 기쁨이 임하기를
바라옵소서"
(눅 2:14)

Dear 예수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사랑하심에
미치지 못하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예수
님의 생신이지요? 아기 예수님의 생신
을 진심으로 축하하려고요.

2000여년 전에 이 땅에 사랑의 몸으
로 오셔서 제가 연약한 죄인임을 몸으
로 느끼셔서 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
지요? 저는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중학생이 되면 예수
님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기도 많이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지켜봐 주
세요.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영아, 아
빠 축성하게 하지 않고 오위려 하나님
과 사람들께 사랑스러우셨는지요?
저도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미령
이가 되고 싶어요. 늘 나와 함께 내 곁
에 계시니 고마워요. 그리고 이런 비밀
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소년부 갑
미령 드림

곧 있으면 성탄절이라는 생각에 벌써
부터 가슴이 설레어집니다. 아시는 것
을 이 양해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신 날이라
는 기쁨에 설레어지기도는 그저 막연한
기대감으로 더욱 설레이지만 말입니다.
그런 저에게 올해 한 가지 바램이 생
겼습니다. 홀로 사는 지화에서 지함이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작은 바구니를

들고 구경하던 그 아저씨와 아직도 집
에 못 들어가 채 먹 근처에서 밥을 지새
무시던 분들, 양로원과 고아원 등에서
그리운 이를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이들
... 정말 그동안 소외되었던 모든 분들
과 주님의 축복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
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
다.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보내 주신 하
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 (조천
영-고등부)

사랑하는 지혜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요쁜 크
리스마스는 하나님과 함께 따뜻한 겨울
을 보냈으면 해요. 열매가 시리다고
짜증나지 마시고 마음 속에 길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물려 이리저리 애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무썬 Merry Christmas! (박성진-
대학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탄생하
신 크리스마스가 와요.

저는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영아,
아빠, 언니랑 즐겁게 모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탄생하신 기쁜 날에
교회에서 찬양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래
요. (계정현-사랑부)

(7명으로)

성탄절 축하 찬양예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라” 오늘 오후 찬양예배에서 가브리엘찬양대

오늘 오후 찬양예배는 가브리엘찬양대에서 준비한
성탄 축하 찬양예배로 드러진다. 가브리엘찬양대(지회
조신욱 반주 백금옥)는 그동안 성탄절 찬양을 위해 “아
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라”(Happy Birthday to Jesus)
는 곡을 만들어 준비해 왔다. 성도들은 새벽을 깨우는
가브리엘찬양대와 오늘 저녁의 찬양을 위해 기도하며
동참해야 하겠다.

성탄 전야 찬양예배 “높은 곳에서 비추는 사랑” 12월 24일 오후 7시 본당에서

12월 24일 금요일에는 성탄전야 찬양예배로 드러진
다. 제1, 3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금일 찬양예배는 1
부 예배(말씀-김성환 위임목사)와 2부 찬양으로 진행되
며, 찬양순서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사랑부, 청년부,
초등부, 소년부, 예배다부, 중등1, 2, 3부 등이 맡았으며,
벤엘오펙스트라가 특별 출연한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
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의 순전한 찬양을 통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하겠다.

'99 교사총회 12월 21일 오후 7시 갈릴릴에서

1, 2, 3교육위원회가 연합으로 실시하는 '99 교사총
회가 12월 21일(화) 오후 7시에 본당에서 거행된다. 모
든 교사들은 빠짐없이 참여하여 1999년 한 해를 마감하
고 새해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

명동 및 서울역 총진도! 12월 23일 청년1, 2부

청년2부는 12월 23일 서울역에 모여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총진도를 실시한
다. 같은 날 청년1부도 명동 대현타운자신 앞에서 명동
총진도전집회를 갖는다.

연말연시 예배 및 주요 행사 안내

12월 19일(주일) 1부예배시	예배 · 안내 · 헌금봉사자, 가브리엘찬양대원 임명
12월 19일(주일) 3부예배시	예배 · 찬양 ·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 일꾼 임명
12월 21일(화) 4부예배후	교구총회(본당)
12월 21일(화) 오후 7시	교사총회(갈릴릴)
12월 24일(금) 오후 7시	성탄 전야 찬양예배(본당) * 성탄 전야 찬양예배로 금요일집회를 대신함
12월 25일(토) 오전 9시, 11시	성탄절예배
12월 26일(주일) 4부예배시	예배 · 안내 · 헌금봉사자, 아멘 · 시온 · 실로암찬양대원, 크로마하프 · 만도린연주대원, 남성중창단원 임명
12월 26일(주일) 찬양예배시	제6차 학습세례식
12월 26일(주일) 찬양예배후	특별세례식, 은퇴 및 근속자 포상
12월 31일(금) 오후 7시	금요일집회 * 송구영신예배는 없음
1월 1일(토) 오전 9시, 11시	신년예배

축성탄 성탄절예배

· 시간: 12월 25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 장소: 본당



수단 단기선교 파송 12월 23일 박태양 전도사

교회는 수단 단기선교를 위해 박태양 선교전도사를
2개월간 수단으로 파송한다. 박 전도사는 수단 현지에서
가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수단 선교지역들을 돕고 1월
말에 파송될 단기로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우간다 단기선교팀 귀국

지난 12월 1일 출국했던 우간다 단기선교팀이 지난
12월 15일 무사히 귀국했다. 이들은 우간다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현장들을 돌아보는 등
선교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



김창인 목사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마태복음 3:13-17)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난 어린 생명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태어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분 증명서가 되어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이처럼 세례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신분 증명서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인다운 교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불행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 꼭झे 잊지 마시고 이미 세례를 받으시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신 분만 말고 예수 믿기로 교회에 들어서는 자마다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세례를 꼭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은 것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라며 신앙고백을 하고 죄를 회개할 때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해 주시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물세례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여생을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성도다운 생활을 살기로 결심하면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는 다시 말하면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죄사함 받았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표로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점을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세례는 받았으나 성령세례를 못 받았으면 형식만 남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남아 있고 육신이 남아 있고 지성이 남아 있고 믿음이 있어 조 모양으로 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요 태어나기는 했는데 자라나지 못한 이런 형식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임하시면 생명을 얻고 힘이 생깁니다. 그리하여 교만을 이기는 겸손한 자가 되고 욕심을 이기는 정결한 자가 되고 낙심을 모르는 기쁨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참다운 천국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세례를 받으신 승리하는 자유와 연배를 맺는 성공자가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 본받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이 권을 베푸실 때에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연배를 맺는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땅에서부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세례는 고사하고 물세례도 못 받은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떠나면 지옥 불에 빠져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가족과 친지 가운데 예수 안 믿어 세례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모두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세례받을 수 있도록 진도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육간으로 구원함을 얻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세상 이별하는 날 천국 가게 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세례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기뻐하십시오.

1. 예수님도 세례받으셨습니다

(1) 세례 받으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소는 옛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갈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건넌던 그 자리라고 합니다. 요단강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이 갈라져서 가나안 복지 천국을 비유합니다. 이런 뜻있는 곳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2) 세례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부정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받는 세례를 예수님께서서는 왜 받으셨을까요? 우주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만 봐도 이유는 지극한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의 몸을 쓰고 세상에 오셨으니 예수님 스스로가 사람의 몸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법을 지키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오 신분이 인간인 인간의 몸을 쓰고 세상에 오셨으니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한 가지 한 가지 지키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존손을 배워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법을 지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꼭 지키는 겸손한 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 이유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니라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만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셋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선언하기 위하여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느님이 소리가 이르시니 내가 사랑하는 아들 곧 내 사랑하는 자라 하시니라” (16-17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민의 구주이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도 높으신 분이지만 물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어리석은 자들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에게 권면해야 되고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2. 세례받은 자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나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언제나 새 자기의 생활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1)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용서받기 받아 줄은 사람으로 의인으로서 인정받았으니 기쁩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니 기쁩니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니 가르쳐 주시니 기쁩니다. 필요할 것을 때를 물은 은혜로써 공급해 주시니 또 기쁩니다.

(2)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물세례를 받고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큰 감격이 기도로 바뀌고 기도로 용달되어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의 혜택을 입을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큰 이적을 행했어도 오늘 성령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흉터만 남고 지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항상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 법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는 힘든 것 같으

나 지나고 보면 더 큰 복을 받았습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는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했으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려고 핑계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줄 알고 사람에게 미안한 줄 아는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오, 감사합니다”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를 바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기로 약속하신 약속 그대로 성령님이 함께하시다가 세상 떠날 때에 무섭지 않게 하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도록 하십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성전에 참여하는 자격자가 됩니다. 세례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양말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 만으로 본들에게 권면하여 되고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은 자는 성전에 참여한다는 말은 천국 전지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식에 참여할 때에 천국 전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3. 결 론

세례받고도 기쁜 줄을 모르고 세례 안 받고도 무서운 줄을 모르면 신자가 아닙니다. 세례 받은 것을 기뻐하고 세례 못 받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세례 못 받은 것을 기회를 놓치는 무서운 것임을 알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얻은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으므로 우리들은 다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정성을 쏟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의 은혜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이 나라와 의를 믿지 구하지하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절정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여생이 예수님의 자랑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김성관 목사

나뉘어지는 아픔

(누가복음 2:35)

“또 같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픔을 통하여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기념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천년을 앞두고 우리 충현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1999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모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그녀가 장차 겪어야 할 고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35절). 마리아는 장차 나뉘어지는 고통을 경험할 축복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하게 될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본질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광으로 인한 것인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 특히 사랑하는 이와 분리되는 고통을 건디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통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하는지 자주 의문을 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겪게 되는 고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의 진리를 살피고자 합니다.

은혜로 입한 축복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리아의 아름다운 성품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선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어느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눅 1:28). 이 특별한 인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해 놀란 마리아(29절)에게 천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시겠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눅 1:31-33). 놀랐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당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눅 1:34). 그러자 천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천재지품의 아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 일생을 이태한 지 6개월을 맞은 친척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리아의 혼란함을 들은 메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

고, 그들은 석달 간 함께 지내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였습니다(눅 1:41, 56).

마리아의 고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위해 여러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출산을 앞둔 힘겨운 상황에서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까지 삼일 길을 여행해야 했고, 산파에 누운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아기를 낳아야 했고, 할례의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 갓난아기를 안고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의 위협을 피해 한밤중에 애굽까지 피신해야 했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갈릴례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마리아 부부는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 마침내 나사렛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통틀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양육하고 돌보는 등 정상적인 모성의 수고를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자녀들과 꼭 같은 모습으로 자라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자라나시는 동안 부모님께 순종하고 동생들을 돌보셨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인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낳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뜻을 따라 기쁨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뉘어지는 아픔의 시작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 그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자들의 긴 행렬 가운데서 소년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를 찾기 위해 삼일간이나 동분서주하다가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되돌아오자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의 박사들과 더불어 질문을 주고 받으며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놀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도다”(눅 2:48)고 말했다. 그들은 아들의 행동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던 것으로 인해 그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눅 2:49). 아들이 요셉을 몰라도 마리아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소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뉘어지는 아픔을 깊이 경험해야 했을 것입니다. 지난 12년간 평범한 아이로 자라나셨던 예수님이셨기에, 그녀의 가슴을 쓰라리게 하고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마리아로 하여금 건디기 어려운 변화에 대하여 각오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나뉘어지는 아픔의 이유

이제 그 때로부터 18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 보시다(요 2:2). 많은 손님들이 참석한 그 자리에 그만 가장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그러자, 잔치를 돌던 모친 마리아는 거의 자도움을 요청하신 예수님께로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장자를 의존하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연스런 행동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까”(요 2:4). 이렇게 대답한 대담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육신의 모친 마리아 사이에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모친을 따르고 순종했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친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상황과 모친 마리아의 상황은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다시한번 장자 예수님과 나뉘어지는 고통을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까.

떠나 보내야 하는 아픔

그로부터 얼마 후,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의 이러한 구분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모친과 형제들을 반대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인 인종과 휴식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려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냐 동생들이냐”(막 3:33).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막 8:21).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과 분리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예수님께 한식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전기가 반드시 공개적으로 선포되었어야 하는 말씀이었을

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것이 모친 마리아에게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찢기는 마음

이제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마음이 찢기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 앞에서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아들의 발 밑에서 울부짖는 것 뿐입니다. 그녀의 장자가 십자가에 못박힌 채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 예수께서는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모친을 향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어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요 19:26). 그리고 제자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요 19:27)고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친에게 다른 젊은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자비로운 행동과 그의 죽음은 마리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찢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로 인해 그의 모친은 깊은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우리들과 동거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떠날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들 예수께 어떤 기가면 갈수록 그녀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곧 그녀가 받은 바 놀라운 축복,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함께 있는 그 축복으로 인해 그녀는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와 시모온은 그들을 축복했고, 그 결과 그녀는 고통을 경험해야 했지만 그 고통 자체는 또한 그녀로 하여금 진정한 진리를 발견케 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진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고통의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통이 우리들은 자녀들과 분리되고 부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이 세상과 그 관점으로부터 나뉘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축복과 고통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뉘어지는 고통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세계 선교

바위가 많은 강 수리남(surinam)으로 갑니다

기도제목

1. 성령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도록 다 믿을 주소서.
2.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한지에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도록 하소서.
3. 성실하고 진실한 기도의 중보자가 많이 생기도록 하소서.
4. 동역자들간에 협력 - 섬김, 사랑, 겸손, 인내 - 하게 하소서.

수리남은 남미 브라질 위쪽에 위치합니다. 수리남의 의미는 바위가 많은 강이라고 합니다. 면적은 163,000km로 남한의 1.5배의 넓이입니다. 인구는 404,800명. 수도는 파라마리보(Paramaribo)로 70,000명이 거주. 국민소득은 \$1,214(1993년 통계). 1815년 이후 네덜란드의 통치를 받다가 1975년 11월에 독립했습니다. 언어는 네덜란드어가 공용어. 종교는 힌두교 27.4%, 천주교 21.6%, 기독교 19.9%(22개 교파로 이단도 포함), 이슬람교 19.6%, 강신술 5.5%(주로 정글에 사는 흑인), 무종교 4%.

종교의 자유로 인해 힌두교, 회교도들에게 복음 전파

△ 왼쪽부터 한정은, 이수경, 오경진

수리남에서 사역하시는 안석렬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1년간 교회 사역, 원주민 전도 사역, 어린이 사역, 미용 사역을 감당하게 될 단기 평신도선교사 오경진, 이수경, 한정은 자매가 12월 22일(수) 수리남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수리남에 있는 에비만 주님의 백성을 향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3명의 단기 평신도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일꾼 양성

유치부 분반공부 실황중계

전국 일꾼들이 쭉쭉 자라나는 소리가 들린다

5살짜리 꼬마들은 예수님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유치부 꼬마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을까? 한창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5, 6, 7세 꼬마들이 가득 모여 있는 유

치부실을 살짝 엿보았다. 앞에서는 어찌신 선생님이 이리저리 손가락 유채로 토막토막한 말뚝으로 한 마디씩 하면 아이들은 어서 그 큰 소리를 내는지 우뢰와 같은 목소리로 따라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을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성경을 펴는 모양을 하며, 밖에는 모양을 하며 성경구절을 외우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랑스럽다. 그 중에는 앞에 서 있는 선생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열린 구와 놀하는 꼬마도 있고 혼자 박수 치고 있는 꼬마도 있다.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모습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배우는 성경공부' 시간이 되었다. 열매 7반 강수원 선생님께서는 윤명준과 아이들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맞추기 시작한다. '일주일동안 잘 지냈어요' 하는 선생님의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들이 제다 한 마디씩 한다. '전생님, 이번주엔 할미꽃이 편지를 썼어요. 전생이의 자람스러운 말투, 선생님께 칭찬을 받은 지연이는 자신감이 붙은 표정이다. '자,

누가 지난 주에 배운 말씀 외워 볼까?' 선생님의 말씀에 알송달송한 표정들이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이 몸을 움직여 하며 말씀을 외워 본다.

오늘 말씀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양아에 있는 이 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얼 주었지요?' 자신있는 표정으로 찬송가가 '참관이요' 하고 외친다. '그래요, 참관같이 생긴 만나지요. 그런 만나를 배우시키는 누가 주었나요?' 아이들이 이번 만큼은 모두 알겠다는 듯이 예뻐다가 떠나가고 외친다. '하나님요.'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아이들에게 맞서는 초콜릿을 간식으로 주셨다. 찬송가가 큰 목소리로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있게 먹게 해주세요...' 지연, 찬송, 소망, 하나님, 주은, 예현이 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천국 일꾼으로 쭉쭉 자라나는 소리가 들린다.

강수원 선생님은 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 이렇게 어릴 적부터 말씀을 알고 배우는 유치부 아이들이 너무나 귀하다 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서 오려리 다 많은 은혜를 만나는 귀한 교제를 하신다. 하늘나라에서 생뵈미를 만나는 아이들과 선생님의 모습이 사랑스럽다. (이수경 기자)

미디어와 크는 아이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상상해 본다. 흐릿한 어둠 속 작은 등잔 하나에선 아지랑이 같은 불꽃심이 흔들거리고 있고 오색과 마리아의 것이 한 기쁨의 목소리와 동방박사들의 찬미소리 그리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말들의 '푸르르' 하는 숨소리와 전조디기에서 나는 '푸스스 푸스스' 하는 소리들 위에는 사방이 적막하긴 했을 그 밤, 아기 예수는 보는 것보다 소리에 먼저 익숙해지고 있었을 것이다.

요즘 아이들이 보는 것에 익숙해지는 환경에서 자라난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가리켜 '미디어 세대'라고도 부른다. 현대인의 탄생과 죽음 가운데를 함께하는 이 '미디어'는 기독교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유아부의 경우를 들어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자.

우리 교회의 아이들 역시 미디어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TV를 보니까?'라는 질문은 유치부 교사 및 어머니 27명 중 21명이 하루 2시간 혹은 그 이상이라고 응답했고 TV프로그램의 아이들에게 유익한가라는 질문에는 27명 모두가 '프로그램에 따라 혹은 대체로 유익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TV는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신 일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2명의 '이미 지쳤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이미 지쳤다'라는 답변에 주신 분도 한 분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마도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미디어 자체에 대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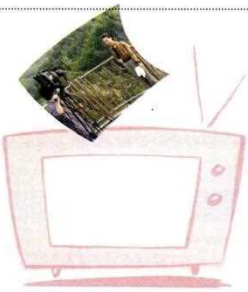
가라! 가서 전하라!

우리 교회 박태양 선교전도사는 98년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수단 단기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수단을 향하여 12월 23일(목) 출국합니다. 볼거리가 전혀 없는 사막 같은 집거리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푸란 폭포를, 40도를 넘는 더위, 말라리아를 비롯한 각종 질병.

수단, 누구라도 거쳐 살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가라! 가서 전하라!' 예수님이 명하시니 갑니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1월31일에 수단을 향하는 7명의 의료단기선교단과 3명의 단기 평신도선교사가 출발을 앞두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보자로 우리 모두 아프리카 선교에 동참합시다.

가 비교적 쉬운 편이며 통계에 의하면 21개 단체에서 140명의 선교사가 일합니다. 남아메리카에 있으면서도 무슬림과 힌두교도가 인구의 반 가까이 되는 나라입니다. 무슬림과 힌두교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려 있는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250년이 넘으면서도 기독교의 힘이 미약하며, 이로 인해 물론로, 예호와종인, 안식교, 심지어는 일본의 젊은 여자들이 통일교를 전하러 걸린다는 이곳에 와 가가호호 방문하고 있는 절경입니다.



상당수의 부모님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일 것이라거나 추측해 볼 수 있다. 아울러 'TV유치원', '뽀빠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체로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프로그램은 자칫 가치관의 혼동을 줄 수 있는 만화가 대부분입니다.

아차라 TV라는 미디어는 경쟁보다는 사전 자체에, 원리보다는 개인의 성품에, 합의보다는 갈등에 초점을 맞추며, 그럴 듯한 화면에 치중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모들은 이러한 미디어의 캐해를 지금보다 갑절 인식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와 살갑게 나눌 수 있는 양육의 방법을 생각하고 구체적인 행태를 할 것이라고 본다(TV는 매일 2시간씩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비해 교회는 한 주에 2시간 가량 양육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다).

기독교는 아무래도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과 깨닫는 것에 근거한다('우상'은 하나님을 볼 것으로 만든 것이고 유대인들은 보이는 바 이적을 요구하였다). 결국 가장 효과적이고 기독교 교육은 부모님들의 지혜로운 헌신에서 나오는 것일 것이다.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장대신 기자)

정년·소망

온갖 고난을 넘어서게 하는 믿음으로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신다

김 해 정(집사, 청년1부 교사)

난 가진 것이라곤 하나 없는 거지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느날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절 좀 봐주세요. 저는 죄를 멀리하고 착하게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저를 한번 믿어 주세요요." 나는 기도하기보다는 자라리 이야기하듯 이런 부탁을 계속해서 드렸다. 그렇게 부탁이 계속되던 어느날, 하나님은 내 남편(이두희 집사)을 만나게 해 주셨다. 한 문밖에는 기지 그나마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형제 중 둘째 아들인 그를 만난 것이다. 그는 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함께 있고 싶고 결혼해서 살고 싶었지만 나는 너무 초라했고, 결혼할 만한 조건은 하나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다시 부탁드렸다. "그와 결혼시켜 주세요. 만일 결혼한 시켜 주시면 내 생생, 내 남편, 나의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요. 한번 믿어 주세요요." 어느날 서울에서 출부까지 내려오는 그 사람을 기다리며 길에서 217장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를 부르는 동안 많이 울었다. 그리고, 그야말로 예뻐도 없는 완전한 한 손이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는 그에게 시집가게 되었다.

시집에서는 내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었는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고 나 하나님 보시고 좋다고 하시며 결혼을 허락하셨다. 어떻게 보면 일관적으로 속으신 셈이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친정집으로 첫 결혼도 축하하고 시할아버지 제사, 조상 앞에 인사드리고 가는 시어머니의 명령과 함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나는 하나님과의 약

속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했다. 나는 절하기를 기결한 대가로 시할아버지 비롯한 온 식구들로부터 뭇베위먹은 행동이라는 이유로 무척 혼이 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날 시집살이로부터 나를 출애굽시켜 주셨다. 평생을 살 것이라며 물로 든든하게 지은 시댁집의 정원과 장독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그 덕분에 집을 팔게 되었고 나는 살림을 따로 나눌 수 있었다. 내 행방을 늘 어시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세 식구에 대한 시댁의 대응은 찬란한 전세금이 전부였다. 전세금을 치르고난 우리 손에는 단돈 만원도 없었지만 난 너무 좋았다. 교회도 다닐 수 있고 남편도 자식도 있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어 너무 가슴벅차고 감격스럽고 흥분되었다. 가난은 이유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셨다. 밤에도 깨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에는 교회로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낮에는 시집에서 일하고 밤, 낮으로 깨어 있어도 피곤하지 않았다. 교회에 갈 수 있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나는 신앙의 자유인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믿으며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기 위해 애쓰게 할 때, 참으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해야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이어진다. 하나님도 주님의 은혜로 백도 주님의 은혜로 천도 주님의 은혜다. 우리를 도와 준 것은 세상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참으로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셨을 때부터였다. 나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기쁨과 설렘.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판아서 주 앞에 올은 사람됨을."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난 항상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리고 남보다 그 감격으로 많이 운다. 나 같은 죄인이 천국교인이 되고 청년부 교사로 일할 수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살 수 있구나 생각하던 눈물이 난다. 너무 고맙고 부끄러워서. 하지만 난 기쁘

다. 어떠한 권위와 돈과 위력도 나의 이 영원한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어느날 주님은 나에게 너무 큰 선물을 주셨다. 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말이 너무나 강하게 내 가슴을 두드렸다. 나 같은 바보에게도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신 것이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천국잔치가 있음을 생각하면 정신이 없을 정도도 기쁘고 감격스럽다. 7개월 전부터 난 일을 한다. 일하면서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본 초마다 느낀다.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아세요? 라고 소리치고 싶다. 혼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 기쁨을 아실까요 라고...

우리 가정을 보면, 처음 시집 올 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시이도 한 분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온 식구 가족을 다 예수 믿는 기쁨으로 인도하셨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는 충헌교회 집사님이시다. 내 마음의 고백이 절대 자랑이 아니길... 너무 가난한 내 가지였던 내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오는데 그 때와 사람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내 편이심을 자랑하고 싶을 뿐이다



나의 아이들을 천국의 자녀로 키우시는 하나님

정 은 숙(선사, 사랑부 교사)

저는 못났지만, 아이들이 참 잘해 주었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85년도에 아이들이 아직 청소년이었을 때, TV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TV에 빠져 있는 모습이 안좋아 보여서 남편에게 건의해서 스포츠만 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TV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벌써 15년 가까이 없었지만 아직도 TV가 없습니다. 불행한 것도 없고, 대신에 저는 생활에서 부모다운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애쓰게 되었지요. TV가 없는 동안 아이들은 서로 밤늦도록 이야기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너무 냉정하게 대하니까 하루는 남편이 '아뵐만!?'하고 꾸지람을 하기도 했지요. 나중에 아이들이 제 속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지요.

둘째 아이인 아이들이 대학입시를 치르기 위해 고사장에 갔다가 시험은 안보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미리가 아파 우리 생각도 나지 않길래 그냥 왔다고 하더군요. 본래 그 아이는 신학을 전공하려고 했지만, 점수가 많이 좋아지자 선생님의 권고로 학교를 바꾸어 시험을 치기로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시작도 못하고 돌아온 것이지요. 그리고는, 군에 가기 전 20일을 급식하고 바로 다음날 미처가꾸 한 잔 만시고 일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하신 인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큰 딸만 생각하면 마음이 시릴 정도입니다.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 그러더군요. "엄마, 사실 커피가 판가없이 없어서 커피를 못마신 적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그 어려운 날들을 보내면서도 한번도 불평해본 일이 없었어요. 너무 미안할 뿐입니다. 사실, 저는 좀 시하다 싶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감시하라는 말을 반복했습다. "어려운 게 있으면 감사해라. 살아 있으니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느냐?"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들 잘 따라 주었습니다.

막내 딸은 맘이 약해서 상처를 받기도 꼭 참는 성격이어서 안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뜻까지 잘 건졌습니다.

95년도에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날 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찬송을 불러달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찬송가 102장과 함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계속해서 불러 주었지요. 남편은 그 찬송소리를 듣고 주님께 갔습다. 아이들은 그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내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갈 때에는 교회에 들어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올 때에는 교회에 들어서 기도하고 집에 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어떤 전도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에 너무 미치게 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만 살아서 되겠어요?" 하지만 그 전도사님은 웃기만 하셨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부지람을 듣고 제가 회개했지요. 그 후론, 주일에 학교에 일이 있어도 학교에는 절대 안보냈고, 교회 행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히 보냈습니다. 큰 딸은 중학교때부터 장예인 위해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몹시 불만을 나타내면서 꾸중했지만, 그 아이는 끝내 그 길을 고집, 저도 장예인을 꿈을 좇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친히 당신의 자녀로 키워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예수님과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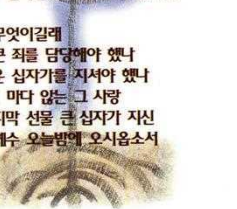
김 용 섭(선사, 장년1부 교사)

아시아의 예언대로 이세의 줄기에서 자란
생명의 꽃 **이제 예수**
지금 이 저 높은 하늘 보자 비우고
수문 한가로이 댕겨 더 천하게
교회와 거년의 어떤 모습
탄생은 거룩하나 세상의 첫 천을 말구유

유대방 작은 고을 베들레헴
관심없는 그곳에 온 우주를 다스릴
이제 예수가 나실 줄이야
인간 목수의 아들로
영혼을 건국하는 목수 나사렛 예수

삼십삼년 늘 푸른 나무로
당산-땅에 머물렀었다
세상은 그를 잊고 영정없이 없어
아름 우러려
외로움에 인자는 머릿돌 꽃이 없어라

인간이 무엇이었길래
당신이란 큰 칙을 담당해야 했나
그 무거운 십자기를 지셔야 했나
죽음마저 마다 않는 그 사랑
생의 마지막 선물 큰 십자가 지신
승리의 예수 오늘밤에 오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 하곤한 체험은 없지만

장 충 근(침사, 중동부 부장)

난 어머니와 큰누나의 등에 업혀 식구들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가서 살면서부터 교회에 다녔다(빛바랜 사진 속에서 누나의 무릎에 앉아 있는 꼬맹이 나를 여러 사람들 틈에서 발견하고서야 나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음을 나중에 알 수 있었다). 그때부터 이년까지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한번도 주일에 교회를 빠진 적이 별로 없다. 해외 출장 중에도 주일이면 숙소 근처의 교회를 찾곤 하였으니까.

이런 나에게는 예수를 만났을 때의 일을 말하라고 하니 막막하기만 하다. 언제 그분을 처음 만났더라?

어섯살 때 나는 식구들과 함께 다시 서울에 올라와 해방촌에 살면서 남산교회에 다녔고, 그후 초등학교 2학년때 울지로 2가에서 살면서 다른 식구들은 중원교회에 다녔지만 나는 영락교회에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다. 금호동 달동네로 이사한 후에도 중학 3학년까지 그 교회에 다니면서 학과가 지 받았으나,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곧 바로 식구들이 다니고 있는 중원교회로 옮겼다. 그후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거쳐 지금까지 중원의 한 식구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난 언제나 키작은 약전하고 꽤나 착실한 학생이었으나 소기가 유난히 없었고 남들 앞에서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였다. 장중공원으로 노방전도를 나갔을 때에도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주님을 증거하지도 못했고, 해마다 갖는 여름수련회때에도 남들은 자신의 예수님을 만난 첫경험을 뜨겁게 간증하였으나 내게는 그런 화려한 체험이 없이도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주님이 더 사랑하고 계신 증거가 아닌지? 그때 난 땀방울을 세게 얻어 맞은 듯하였고, 그때부터 그 말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서도 도마에게 “나는 본고로 믿는다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하시지 않았던가? 그렇다. 나는 언제 처음 주님을 만났는지 확실히 모른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주님과 만나고 있고 또한 함께 살고 있다.

주강성경공부를 마치며 평소 복잡해하던 여гийн 말씀 깨달아 너무 기뻐

김 순 임(침사, 청년2부 교사)



한 세기가 지나고 세 천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난 수요일 나사렛 출세자는 주강성경공부 레위기란 종강이 있었다. 개근상장과 수료증을 받아온 수강생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좀 더 알기 쉽고 자세히 전하고자 하는 목사님의 정성어린 강의에 감사드리며 다음 스텝을 때문에 바쁘게 문을 나가시는 목사님을 향하여 수고와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레위기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관심 없었던 과목이라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교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다기에 구역 집사님들과 강의실로 들어갔다. 처음 강의는 제사법과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절기란 주제로서 5대 제사와 일곱 가지 절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평소에도 복잡해하던 생각했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 너무 기뻐했다. 강의는 계속할수록 재미를 더해갔다. 목사님은 더욱 험악게 강의를 하셨고, 듣는 자도 한 마디 놓칠새라 90-120분 동안은 조는 사람도 없이 필기하며 열심히 들었다. 나의 믿고신 신사님도 이해가 될 지 모르겠다. 결론도 하시면서 배우려는 열정은 참 보기좋은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번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구역은 어렵고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한 말씀도 그렇듯이 없고 완전한 것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있을 때마다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성령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제는 성경 말씀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음을 다같이 열심히 공부했던 50여명의 반원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그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친양대원양성부를 마치며

여호와 찬양을 위해 창조된 존재

김 연 근(침사, 17교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대원양성부를 수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치도록 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울어내는 찬양의 욕구를 느끼곤 하였지만 그때마다 찬송가 가사도 울게 다 외워 부를 수 있는 찬양곡이 몇 곡 안되는데다가 멜로디로 따라부르기 어려운 곡은 베이스로 부를 수 있으면 읊조리 마셨는데 악보도 볼 줄 모르는 무지함으로 답답해하던 중 찬양대원양성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니라”(사 43:21). 담임목사님의 예배 인도시 말씀 중간 중간에 들려 주시는 찬양이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워서 흥내라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우리의 몸은 만들어질 때에 이미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도록 창조되었음을 알게 되어 오묘하신 주님의 섭리를 다시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하신 양성부 수강생들의 새로운

지식을 대하는 열심과 호응의 도가 뜨거웠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전하여 주시는 강사님들의 진지함은 13주간의 교육을 짧게 느껴지게 하여 주었습니다. 찬양에 입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발생방법, 호흡조절방법, 악보 읽는 법에 이르기까지도 자세히 배웠습니다. 가사가 주를 찬양하는 내용이라 하여 모두 좋은 찬양곡이 아니라 사탄도 악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모든 성도들도 이미 알고 있는 교회의 찬양 방침을 준행하여야 되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대원양성부를 수료한 것은 찬양하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 주신 것이며, 이제부터가 찬양대원양성부 것을 옮겨 찬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훈련하는 양성 코스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올라가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찬양에 임하고자 합니다.

교사양성부를 마치며

제자의 전인격적인 교사로 거듭나는 기회

이 승 국(청년부)



1997년 당시 청년1부에 있었는데, 조장으로 섬의를 맡게 되었다. 비록 교사는 아니지만 조원을 관리하고 주일 성경공부를 인도한다는 면에서는 교사와 별 다른 점이 없었다. 부른 가슴을 안고 시작한 성경공부 첫날, 바로 그 첫 날부터 나는 철저히 깨지기 시작했다. 조원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어느 누구보다도 조원들에게 정말 잘해 줄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 그때 받은 상처는 정말 나에게 큰 것이었다. 이후로도 일년 동안 그 죄를 인도하였는데, 조원과 일대일 성경공부를 하거나 다른 조와 합조하여 공부하기 일수였다. 열심히 나오던 한 명의 조원으로 인해 결국은 일대일 성경공부로 그 조를 끝낼 수 있었다. 이후 다시금 조장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조를 공동분해(가시켰다)는 죄책감과 자책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잘못된 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가르칠 성경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였는데...

이러한 교단 쇠진 나의 의문과 불만에 대해, 교사양성부에서는 자신의 성경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제자의 전인격적인 교사가 되어야 함을,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정말로 주님께 올려

르게 인도할 수 있는 통찰생성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성숙하여 완전한 자유롭게 되기까지 필요한 수련을 부모가 해주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중요한 교사가 어떻게 그저 자신감과 열심으로 스스로 되어질 수 있었는지?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능력만 믿고 행하는 교만이 될 수 있다. 교사 역시 올바른 교사가 되기 위해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교사양성부에서는 성경 지식뿐 아니라 성품, 지도, 전도, 성령, 마음을 열기 위한 화평, 교단 작성 방법과 교사가 되기 위한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잘 가르쳐 주었다. 그동안 나의 교사양성부를 통해 깨달은 것은 이러한 성대체으로 많은 분량의 지식과 정보를 통해 내가 아는 것이 적다는 것과 교사가 되기 전에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다시 조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감으로 임하고 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주님께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체물소식

영아부
하나님은 아기들을 어찌 보실까?

지금까지 영아부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을 지켜 주신 하나님, 아기들이 무엇을 알게 해도 주일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중에는 엄마, 아빠에게 반복해서 다시 듣는 우리 아기들이 이제는 많이 자라 찬양으로 기도로 고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누가 세일 했잖나 보면 모두가 예쁘고 잘해서 가리기가 힘들 정도다. 우리 하나님은 아기들을 어찌 보실까?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정으로 가르침을 받고 세상에 나온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 알아가는 우리 아기들이 내년에도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길 기도드린다.

(송혜경 통신원)

유년부
사양의 준비로 바쁜 교사님

1년 동안 정들었던 유년부 친구들을 수료 전급시키기 위한 준비로 매우 분주한 분위기이다. 각 학생의 출석, 요절 의우기, 성경시험, 전도 현황 등을 평가하여 연말 종합사상과 전급식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학생들의 기록 카드에는 그 학생의 특성과 신앙상태, 부모님의 관심도 등을 세밀히 기록하여 내년에 새롭게 담임될 때 될 선생님이 참고하기 쉽도록 배려하였다. 아이들의 기록부에는 그동안 성심하게 최선을 다한 순종으로 큰 상을 받고 좋은 점수 기록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너무 많은 결석과 불성실로 부끄러운 점수가 기록된 친구들도 간혹 있어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1년 동안 학생들에게 쏟았던 교사들의 사랑의 수고와 힘을 다한 정성도 하나님께 평가되어 기록될 것이다. 한편 금번 유년부 성탄예배는 25일 오전 11시 유년부실(교육관 304호)에서 드리게 된다.

(윤옥희 통신원)

청년1부
23일 명동 총동원 전도

청년1부에서는 12월 23일 명동에 위치한 대한투자신탁 앞에서 전도집회를 갖는다. 매년 크리스마스 전에 갖던 청년1부의 명동 총동원 전도집회는 이번 기록을 통해 20세기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진전한 단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죄와 향락으로 어둡게 물들어 가는 요즘의 세태를 반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오후 7시에 청년1부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시작되는 전도집회는 명동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년1부 회원들의 일대일 전도와 진행이 된다. "연말의 한결 들른 분위기를 바로잡고 예수님의 단생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한 이번 행사에 청년1부 회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중현의 친구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윤옥희 청년1부 회장은 말한다. 이를 위해 오는 청년1부 집회 시간을 통해 청년1부 회원들에게 전도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청년1부 통신원)



물·매·들

BC(주님 오시기 전)의 삶에서 AD(주님 오신 후)의 삶으로

노영현(집사, 대학부 교사)

10여일만 지나면 1999년이 지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 예수님이 오신 지 2천년이 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주전(BC)과 주후(AD)로 나누어진다. 세계 모든 나라가 종교 문화와 관계없이 이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하겠는가?

주님이 오신 후 지난 2천년의 역사를 군인들은 전쟁사로, 경제학자들은 경제사로, 문화인은 문화사로, 종교인은 종교사로 각기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주님이 오신 후 지난 2천년간 기뻐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한편에서 복음을 듣고 이를 막는 사람들과의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병전시대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대결로 보지만 그 내면은 역사를 바꿀려는 세력과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과의 전쟁에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History)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BC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민족 복음화와 세계전교가 필요하다.

12월 첫주부터 성탄절까지는 대림절이라고 하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간절히 마라고 기다리는 절기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밀라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던, 에루살렘 군중들이나 당시의 생판한 종교 지도자들(대제사장 바리새와 사두개파와 서기관 등)에게는 찾아 가지지 않았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남매와 실망당한 사람들을 맞게 찾아 가셨다.

마지막 천년을 보내는 1999년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할 것인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일서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자. 남매와 실망으로 삶에 지치고 짜들었지만, 절망과 각종 고통으로 힘들지만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기를 기다리자.

아마도 BC의 인생을 살고 있는 세신자들과 율법주의적인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들의 가슴에도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오셔서 AD의 인생이 새 천년에는 시작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자.

내가 진심으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지난 2천년을 마지막 보내는 금년 성탄절에 출현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형제 자매들의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이들이 AD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1편에서)

**"지극히 높음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당에서는 기뻐함임을 아는 사람들 중에 평화코다"**
(눅 2:14)

예수님의 탄생으로 세상 모든 사람은 죄 중에서 석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빈민과 마지막에는 사망의 지옥에 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과 고통을 참으로 바꾸시고 환난과 물파는 기도로 바꾸시고 우리가 지옥 갈 죄의 몸을 천당에 가지려고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내 정성 다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성도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정성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힘 다 바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요 특히 천국이 넘는 우리 소망받은 주님 계신 하늘나라를 더 한층 가까이 바라보며 믿고 소망합니다. 금년 성탄절에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박경조-소망부)

나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 모두 1999년 성탄을 주님과 함께하여 찬양합시다. 우리 청년2부는 서울동 광장에서 12월 23일 저녁 예수 탄생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을 보내십시오. (김영옥-청년2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보다 더 좋은 수 없는 기쁜 소식!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분주함으로 인해 지쳐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든 고통의 순간에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육신의 아픔과 성령 속에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으며 살아가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또다시 설레임으로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소망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들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새 천년에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Merry Christmas! (종은숙-에바다부)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는 줄거울과 기쁨으로 누리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변든 자와 어려운 자들을 더욱 사랑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온 마음과 능치는 기쁨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강영숙 집사-3교구)

